한국학연구 제62집 | 9~45쪽 | 2021.8.

식민주의 역사학 속의 일본과 중국*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任那日本府 및 樂浪·帶方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상우**

〈차 례〉

1. 서언
2. 임나일본부 논의에 나타난 일본의 국가 체제 발달
3. 문화적 연원으로서의 "支那文化"와 그 정수로서의 樂浪
4. 결어

[국문초록]

가장 대표적인 식민주의 역사학자 가운데 하나로 고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연구했던 이마니시 류의 연구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20세기 전반 일본의 대륙침략이라는 역사적 국면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역사학계라는 자장 속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생각에서 이마니시 류의 연구에 나타나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논의들을 임나일본부와 낙랑·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것이 일본사의 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강점 이전부터 한국을 직접 조사해 본 경험이 있던 이마니시는 시종일관 일선동조론에 대해 선을 긋고, 한일은 빈번한 "교통"에 따른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고대 일본이 삼한과 신라에 비해 진보해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이었다. 수차례의 고고학적 조사에도 어떠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마니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그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일본 세력의 성쇠를 일본의 국가 발전과 연결지었다. 즉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은 일본 朝廷의 집권력이 일본 전체에 미칠 정도로 발전·성숙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神功皇后代에 이르러 통일적인 집권력을 갖춘 국가가 성립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내부적 역량을 바탕으로 신라 정벌을 단행한 이래 雄略天皇代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세력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또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의 시기를, 나카 미치요와 마찬가지로 日本書紀의 기년에 대략 120여 년을 더하는 기년론에 입각하여, 4세기 초·중반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일본에서 4세기에 들어 집권력을 갖춘 국가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발전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찍부터 선진적인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마니시는 중국 문화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연원"으로 위치짓고, 일본의 중국 문화 도입 시기를 낙랑군을 통해 끌어 올렸다. 강점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이 평양 일대의 고분군을 낙랑군과 연결지으며, 낙랑군을 평양 일대로 비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유물을 발견했던 이마니시는 중국과 일본의 교류를 낙랑군과 일본의 교통으로 치환하여 그 시기를 기원 전후로 소급하는 한편 중국 문화의 수용도 더욱 편리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3세기 중반까지도 대방을 통해 魏와 倭가 계속해서 접촉을 이어갔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낙랑과 대방은 한반도에 있었지만, 당대 중국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곳으로 파악했으며, 이마니시 역시 이러한 연구자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일본이 기원 전후 이래 낙랑과 대방을 통해 수용한 중국 문화는 바로 당시 최고 수준의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화 수용이 일본의 발전에 중요한 자양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이마니시는 낙랑과 대방을 통해 기원 전후부터 중국 문화를 수용해 성장을 거듭하여 통일적인 집권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한 일본이, 4세기 두 郡이 소멸하고 삼국이 정립되는 가운데 신라의 압력으로 위협을 받던 任那 小國들의 구원을 위해 신라를 정벌함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역사상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주제어] 식민주의 역사학, 이마니시 류(今西龍), 임나일본부, 낙랑군, 대방군

1. 서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이하 '식민주의 역사학')가 드러냈던 침략성과 역사 왜곡의 측면은 1960년대 처음 지적된 이래 현재까지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1] 즉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의 연구가 제국 일본이 자행한 주변으로의 침략과 식민통치의 옹호·합리화에 복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주변으로의 침략을 본격화했던 19세기 후반은 일본 사회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주지하듯이

1)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國史新論』(李基白, 泰成社, 1961)의 첫머리인 '緖論'에서였다.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 사회로 서구의 근대적 문물과 제도가 유입되는 가운데 서구의 분과학문 체제 역시 수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역사학 역시 일본에 도입되며, 일본의 근대 역사학이 성립되었다. 메이지 정부에서 진행한 국사편찬 사업의 중심을 이루었던 청조 고증학에 입각한 한학자 그룹이 유럽의 역사학을 배우는 한편 근대 학문의 상징인 '대학'(제국대학)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속에서 일본의 역사학이 성립했으며,[2] 이러한 토양 위에서 성장한 이들이 일본사를 비롯한 한국사, 중국사 등 주변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즉 일본에서 식민주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개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침략을 옹호하는 침략성과 근대 역사학이라는 양면성을 띠는 것이었다. 이는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근대화와 제국주의화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사의 전개 과정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식민주의 역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는 대표적인 식민주의 역사학자이다. 조선총독부에서 벌인 각종 학술 사업에의 참여는 물론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최초로 한국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경성제대 '조선사학' 강좌의 담당 교수를 역임하며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그를 당시 한국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3] 때문에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에서 이마니시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이마니시의 한국고대사 연구가 보인 역사 왜곡의 양상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4]은 물론 그것이 지닌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 역시 주목하고 있다. 이마니시는 通史라는 근대 역사학의 체계를 지향하며 북방 민족들의 전설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단군을 부정함으로서 한국고

---

2)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나가하라 게이지 지음,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21~57쪽 참고.

3) 일례로 今西 사후 경성제대 조선사 강좌의 또 다른 교수였던 小田省吾는 "조선사학의 개척자"로서 그를 기렸으며, 그의 유고를 모아 1934년에 간행된 『百濟史硏究』의 서문에서, 당시 동양사학계 최고 거물이었던 內藤湖南은 "朝鮮古史 연구에서 博士(今西 : 인용자)와 같은 大家가 다시 나타나는 데에는 10년이나 20년의 세월로는 곤란할 것"이라며, 今西의 학문적 위상을 평가했다.

4) 崔在錫, 「今西龍의 韓國古代史論批判」, 『韓國學報』 13-1, 1987.

대사를 한반도 남부의 韓種族을 중심으로 파악하면서도, 이를 보호하고 후원한 일본민족, 이들과 다른 계통의 종족인 扶餘種, 濊貊, 支那 등과의 투쟁 과정으로 정립하고자 했으며,[5] 근대 역사학에서 중요시하는 '실증'을 통해 식민주의 담론을 사람들이 객관이자 과학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면서, 한국고대사를 전파주의의 관점에서 조선민족의 형성과정이자 중국에의 종속 과정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이마니시의 연구가 지닌 양면성은 규명되어 가고 있다.

근대 역사학은 '민족'을 주인공으로 그 '발전'의 과정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즉 자민족(자국사)의 발전을 실증한 내러티브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되는 자민족(자국사)의 경계가 획정되는 과정에서 타민족(타국사)의 존재 역시 확인되며, 자민족(자국사)의 발전은 저들의 정체/퇴보를 통해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자민족(자국사)의 발전에 대한 내러티브는 타민족(타국사)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띄게 되며, 타민족(타국사)은 자민족(자국사)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이는 운명에 처한다. 한국고대사를 일본의 '보호'와 '후원' 및 중국에의 '종속' 과정으로 정리했던 이마니시의 연구 역시 이러한 속성, 바로 일본사의 발전 과정을 해명하는 성격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논문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고대사에 대한 이마니시의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일본사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마니시가 한국의 고적에 대한 답사를 시작하고 그 연구를 본격화했던 메이지 후반은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이제 막 성립하여 전개되던 때로 일본의 역사를 제국 일본의 과거로서 새롭게 서술하는 것이 과제였던 시기였다. 즉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역사적으로 합리화하는 것과 더불어 발전된 일본사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日本書紀를 처음 읽었을 때 거기에 조선 관계 기사가 너무 많아서 정치사는 물론 문화사적으로도 조선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우리 고대사의 여러

5) 심희찬,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이마니시 류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2013.

6) 정준영,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2017.

문제가 아무것도 해명되지 못한다는 점을 통감했다"는[7]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1902~1971]의 언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에 근접할수록 일본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한국의 고대사를 살펴보아야만 했던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마니시의 연구는 한국사, 특히 고대사에 대한 것이며,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에 대한 믿음은 한국의 고대사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그 전제였기 때문이다.[8] 그런데 임나일본부로 대변되는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은 이미 일본의 발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국가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나'라는 국외를 경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이마니시는 강점 전후부터 이러한 구상을 비추었으며, 1910년대 후반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지역을 답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마니시의 연구가 내포하고 있던 일본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할 때 고조선 멸망 이래 한반도 내에 존속했다고 알려진 중국 군현의 이해 방식 역시 주목되는 대상이다. 사실 식민주의 역사학의 침략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에서 중국 군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왔다. 이를 통해 과거 일본인 역사가들이 한국사의 시작부터 드리워진 외세의 영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어 평양 부근에 무려 420여 년간 존속했다고 알려진 樂浪郡은 당시 한반도 내에 있던 중국 군현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강점 전후부터 식민통치 기간 내내 집중적인 발굴 조사의 대상이었다. 최근까지도 당시 진행된 樂浪郡과 帶方郡의 유적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조사 과정을 규명하며, 그것이 한국사의 타율성과 저급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유효한 수단이었음이 밝혀졌다.[9] 기왕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낙랑군으로 대변

---

7) 三品彰英, 『增補日鮮神話傳說の硏究』(三品彰英論文集 第4卷), 平凡社, 1972, 453쪽.

8) 일례로 1919년 교토제대에서 있었던 한국사 강연에서 今西는 낙랑군과 대방군 해체 이후 6세기 초반까지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백제와 신라의 성장에 따른 加羅諸國에 대한 일본의 구호, 고구려의 압박에 따른 일본의 백제 구원 과정으로 정리했다.

9) 최근 식민지기 낙랑군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과정과 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것이 한국사를

되는 중국의 군현들은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사의 타율성을 드러내는 데에 유용한 소재였던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이마니시는 1910년대 전반 대동강 일대에 대한 고적 조사에 참여하여 낙랑군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유물・유적을 발견하며, 일본인 연구자들이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0] 그런데 그것이 중국의 군현이었다는 것은 일본사를 해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문제였다.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개는 일본사의 해명 과정이자 '동양(사)'의 창출 과정이기도 했다.[11] '서양'과 대비되는 개념이자 19세기 후반 이래－중국을 대신하여－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간인 '동양' 안에서 '中國'은 중화 세계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상실한 채 '支那'로 상대화되었다. 서양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양보다도 우수했던 '지나'의 찬란했던 과거의 문명은 동양 문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동양의 일원인 일본 역시 공유하는 것이기도 했다. 동양의 중심이자 선도자가 된 일본이 먼 과거부터 선진적인 동양 문명의 정수, 바로 중국 문명을 섭취해왔다는 것은 당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일본의 역사적 전제이자 출발점이었다. 이때 지리적으로도 일본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권이 된 한반도에 있던 낙랑군 등의 중국 군현은 일본이 그 역사의 시원부터 발달된 중국 문명을 섭취하며 역사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일본제국의 판도 안에 들어온 '조선 속의 중국'인 중국의 군현은 과거 일본의 동양사학자들에게 '동양' 속에서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데에 어떻게 기능했는지가 규명되고 있다(이영훈・오영찬, 「낙랑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2001; 정인성,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 2006; 정인성,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韓國上古史學報』 71, 2011; 오영찬, 「근대 역사학과 낙랑군」, 2016년 2월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6; 주경미, 「의도된 오독－일제강점기 낙랑문양의 창출」,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2016).

10) 정상우,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2008, 258~259쪽.

11) 이에 대해서는 Stefan Tanaka, *Japan's Orient :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이 책은 2004년에 번역되었다.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濱下武志, 「동아시아 地政文化는 성립하는가?－'동양사'의 출현과 근대 일본」, 『大東文化硏究』 63, 2008; 신현승, 「동아시아 표상과 자타 인식」, 『제국 지식인의 패러독스와 역사철학』, 태학사, 2015.

‘일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통로였다.[12)]

이에 본고에서는 임나일본부와 낙랑군으로 대변되는 중국 군현에 대한 이마니시의 연구 활동과 언급들을 중심으로 그의 연구에 전제되어있는 일본사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가 생각했던 고대 한일관계와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에 나타나는 고대 일본의 발전상을 살펴보겠다. 이후 그의 연구와 강연에 나타난 중국의 문화・문명과 낙랑・대방군에 관한 언급을 통해 고대 한반도를 통해 그가 그렸던 동양과 그 속에서의 일본에 대한 역사상을 추적하겠다.

2. 임나일본부 논의에 나타난 일본의 국가 체제 발달

1900년대 들어 수차례 한국을 답사해 본 이마니시는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은 조상이 같다는 논의에 거리를 두면서,[13)] “上代에 新羅가 日本보다 進步해 있었다는 것이나 일본의 문화가 모두 半島를 통해 들어왔다는 속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의 유사성을 빈번한 “交通” 내지 “征服・被征服”의 결과로 보았다.[14)] 양국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정복과 피정복”에 입각한 “교통”이라도 정의했을 때, 신라보다 일본이 발전해 있었다고 생각한 이마니시에게 정복의 위치에 있던 것은 일본이었으며, 이는 과거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 바로 임나일본부를 염두해둔 것이었다.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명징하게 말해 주는 임나일본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지역에 대해 이마니시는 답사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조선총

12) 정준영, 앞의 논문, 178쪽.

13) 日鮮同祖論을 비롯한 한국사에 대한 今西의 기본적인 관점과 고대 한일관계에 대한 그의 구상은 정상우,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관성」, 『만주연구』 24, 2017, 57~67쪽; 정상우,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 『한국문화』 87, 2019, 399~405쪽.

14) 今西龍,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1, 1910a, 26쪽.

독부 고적조사위원으로 1917년 9월부터 5개월간 善山, 達城, 高靈, 星州, 咸安 등지의 古墳과 山城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7~1935], 쿠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874~1946] 등의 발굴과 조사가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관련성, 특히 임나일본부의 실재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을 찾고자 했던 이들의 조사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15] 이는 이마니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사 이후 이마니시는 두 편의 글(「任那に就て」, 「加羅疆域考」)을 남겼는데, 이 글들에서 유물에 대한 언급은 이 지역의 고분에서 발굴된 토기들이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전부였으며, 이러한 토기의 유사성마저도 "(양측의) 토기를 섞어 놓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골라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이러한 유사성이 양측의 민족이 같아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 3의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것인지를 향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16] 유물을 통해 임나일본부를 증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양측 유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오히려 그가 집중한 것은 5개월여 간의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경상도 지역의 지세 및 유적의 분포에 입각하여 광개토대왕릉비, 眞鏡大師塔碑와 같은 금석문, 삼국사기・삼국유사는 물론 고려사 지리지・세종실록 지리지・동국여지승람 등 한국의 문헌과 地志, 日本書紀・續日本記・扶桑略記・新撰姓氏錄 등의 일본사료는 물론 魏志와 通典 등의 중국사료를 해석하며 加羅 諸國의 대략적인 역사적 경과를 살피는 한편 「加羅疆域考」라는 논문의 제목처럼 神功皇后가 정벌했다는 7國을 중심으로 가야를 이루는 14國의 위치를 역사지리학적으로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이었다.[17]

이렇게 이마니시는 유물을 통해 한일의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 바로 임

15) 1910년 당시 關野는 高靈, 昌寧, 咸安, 眞州 일대의 가야의 고분을, 1915년 黑板은 3개월(5~7월)에 걸쳐 한반도 남부지역 일대를 조사하면서 임나일본부와 관련있는 達城, 善山, 高靈, 昌寧, 咸安, 金海 지역을 6월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들의 조사에 대해서는 정상우, 앞의 논문, 2008, 253~257쪽.

16) 今西龍,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1918-2, 1918, 65쪽.

17) 今西龍, 「加羅疆域考」(上)・(下), 『史林』 4-3・4-4, 1919. 여기서 今西는 '任那'라는 명칭이 加羅=伽耶(加耶)를 가르키는 것임을 논증하고, 가야 14國의 위치를 비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일본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任那官家라는 것은 雄略紀 20年條에 百濟國者日本國之官家云云이라는 말과 같이 附屬國의 의미일까" 정도가 전부이다.(今西龍, 「加羅疆域考 (下)」, 『史林』 4-4, 1919, 39쪽.)

나일본부를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각종의 문헌들을 근거로 "任那는 日本이 半島經營의 근거를 둔 것"이라며, 임나일본부의 성쇠를 다음과 같이 4시기로 구분하였다.

[표1]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마니시의 시기 구분

1기	神功皇后 이전	세력이 점차 나아가던 시기
2기	神功皇后 ~應神・雄略天皇	세력의 전성기
3기	雄略天皇 ~欽明天皇	세력의 쇠퇴기
4기	欽明天皇 ~天智天皇	세력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둔 시기

즉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일본은 神功皇后의 치세가 되어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雄略天皇대에 들어 쇠퇴했고, 欽明天皇 이후로는 "완전히 없어진 세력"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표1]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의 세력은 神功皇后 이전부터 부식되고 있었다. 즉 이마니시에게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은 갑작스럽게 신라를 공격하여 복종을 요구하고, 貢物을 수취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세력들에 비해 문화적으로도 열등하지 않았다. 하지만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을 "야만적인 게르만 민족이 로마에 쳐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日本書紀의 神代 이후 한일관계 기록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는 崇神紀(65년조)에 나오는 加羅의 蘇那曷叱知가 조공했다는 기사를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 朝廷 사이의 오래된 관계를 주목했다. 이마니시는 이렇게 加羅에서 大和朝廷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그 이전부터 加羅諸國과 일본 사이에 교통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이라며 이 蘇那曷叱知의 파견 이전부터 한일 양측의 밀접한 관계를 추정했다. 또 蘇那曷叱知와 같은 사신이 파견된 이유로 신라와 백제가 일어나던 초기, 이들로부터 압박을 받던 加羅의 나라들이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18)]

이와 같이 이마니시는 蘇那曷叱知의 기록을 통해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이전,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이 우위에 서서 한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며 한반도 내에서 일본 세력의 부식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마니시는 이러한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세력의 消長이 "일본 세력의 盛衰와 관계가 깊다"고 보았다. 즉 한반도에서의 일본 세력을 일본의 국가 발전 수준과 연결지어 사고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본 조정은 蘇那曷叱知를 통해 이루어진 加羅의 구원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崇神天皇 당시에는 "아직 日本의 全土에 대해 朝廷의 勢力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어, "仲哀天皇 御代에 각 지방에는 豪族이 割據하고 있어 朝廷이 中央集權 정치를 하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적이 집권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加羅의 구원을 위한 외정에 나서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마니시의 생각이었다. 즉 일본 조정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日本 全體의 統一이 가능했을 때에는 所謂 加羅諸國의 請에 응하여 新羅討伐이 된다"는 것, 바로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加羅의 蘇那曷叱知가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였다는 것이 한반도 남부 경영 및 이와 관련해 볼 수 있는 당시 일본 조정의 집권력 발달에 대한 이마니시의 기본적인 구상이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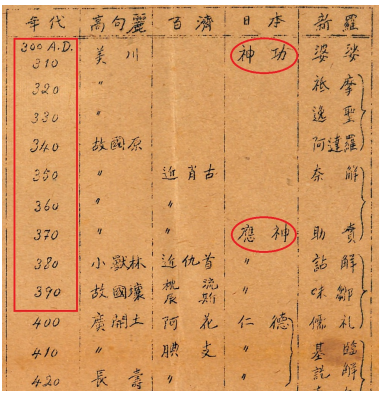
이러한 이마니시의 논리대로라면 神功皇后에 이르러 일본 조정의 집권력이 "일본 전체"에 미쳤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일까? 이마니시는 「任那に就て」와 「加羅疆域考」를 서술하며 자신이 활용한 자료를 소개할 때를 제외하면 서력을 밝히지 않은 채 '○○王 □□年'과 같은 방식으로 시기를 밝혔다.[20] 그렇다면 이마니시는 임나일본부를 전하는 日本書紀를 그대

18) 今西龍, 앞의 논문, 1918, 52~53쪽.

19) 今西龍, 앞의 논문, 1918, 55~58쪽. 한편 今西는 1919년 8월 교토제대 夏期講演會에서 日本書紀에 나타난 蘇那曷叱知의 使節은 'Accident'로 끝난데 반하여 神功皇后의 신라 征伐로 백제 服屬과 加羅 諸國의 經營이 이루어져 일본의 朝廷과 한국의 'Connection'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1919년의 강연에서도 神功皇后의 정벌로 한일의 관계가 안정적인 정복・피정복의 관계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한 것이다.(이때 강연문은 그의 사후에 출간된 『朝鮮史の栞』에 실려 있다. 今西龍,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1935, 114~122쪽.)

20) 일례로 三國遺事에 초록되어 전해지는 駕洛國記를 소개하며 그 편찬과 관련하여 "大康年間(1075-1084) 金海의 知州事 모씨가 편찬했다"라거나, 眞鏡大師塔碑의 건립연대를 언급하며 "後梁 龍德4

로 믿었던 것인가? 한국과 중국측의 사료를 폭넓게 비교해 활용하며, '실증'에 공을 들였던 그가 당시 일본 학계에서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이야기되었던 日本書紀의 기년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마니시가 한일의 고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인 日本書紀와 古事記(이하 '기기')의 기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임나일본부 관련 지역에 대한 답사에 나서기 2년 전인 1915년에 작성한 「日本と新羅との年代の比較に就て」라는 메모가 남아 있다. 이는 250자 원고지 11매 및 4세기 이후 고구려·백제·신라의 王系 및 일본 天皇들의 재위 연대를 대략적으로 비교한 표로 구성된 것으로, 기기의 기년에 대한 이마니시의 생각을 알려준다.[21]



日本에서 傳하는 傳說 중 朝鮮方面과의 關係에서 움직일 수 없는 큰 것은 朝鮮의 近肖古부터 辰斯에 이르는 사이가 우리의 神功, 應神의 時代라는 것입니다. 日本書紀는 百濟記, 百濟新撰 등에 의해 近肖古로부터 阿花王 경에 이르기까지의 百濟 諸王의 소식을 神功, 應神간의 이것에 상당하는 干支의 해 아래에 넣고, 그리고 이것이 直支, 久爾辛 경이 되면 書記의 紀年에 이때에 상당하는 干支로 넣어 百濟 王統의 繼承을 설명할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紀年에 넣었던 것은 神功, 應神과 肖古, 仇首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전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설은 중대한 전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古傳

年(924)"등과 같은 것이다.(今西龍, 「加羅疆域考」(上), 『史林』 4-3, 1919, 360·364쪽) 이를 제외하면 今西는 ○○王 □□年(日本書紀 △△紀 ××年)과 같은 식으로 기년을 표시했다.

21) 今西가 사용한 250자 원고지에는 '朝鮮學叢書原稿用紙'라고 인쇄되어 있다. 메모가 "未完", "大正四年 十二月 十一日 京都帝大讀史會講演"로 끝나는 것으로 볼 때, 今西가 교토제대 讀史會에서 발표를 위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을 존중한 결과이며, 다른 보통의 고전보다 상당히 중요하게 본 듯합니다.[22] (밑줄은 인용자)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서 기기의 연대가 문제시된 것은 18세기 후반 이래의 일이다. 기기의 연대가 혼란스러운 데다가 왕의 재위나 생존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이 태동하던 19세기 후반 이 紀年의 조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동양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그 교육을 제안한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가 「上古年代考」(1878) 및 「日本上古年代考」(1888)를 통해 제시한 紀年論은 당시 일본 지식인층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기기의 합리적 해석을 꾀했던 나카의 기년론은 기기의 연대를 중국과 한국의 역사서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나카의 주장은 기기의 신화를 그대로 사실로 간주하던 국학 계열의 비합리성을 폭로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의 성립에 있어 중대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기기의 기년을 중국과 한국의 史書와의 비교 속에서 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사를 '동양'이라는 무대에서 사고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학-신토계 학자들은 비판을 가했지만, 당시 메이지 정부의 수사국에서 역사편찬을 담당했으며, 훗날 도쿄제대 국사과 개설 당시 교수로 부임하는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1827~1910],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1839~1917],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 등은 지지를 표했다고 한다.[23] 특히 이마니시가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의 "전성기"라고 평가했던 神功皇后에서 應神天皇의 시기는 나카의 기년론에서도 중요했다. 日本書紀 神功紀와 應神紀에 백제왕의 世傳을 전하기 때문에 三國史記나 東國通鑑과 같은 한국측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神功皇后와 應神天皇의 치세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日本書紀 神功

22) 今西龍, 「日本と新羅との年代の比較に就て」, 1915, 7~9쪽.
23) 日本書紀와 古事記의 기년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했다. 나가하라 게이지 지음, 하종문 옮김, 앞의 책, 40~41쪽; 심희찬,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발전과 '조선'의 위상」, 『동서인문학』 52, 2016, 89~91쪽.

紀, 應神紀에서 한국측 사료와 비교할 수 있는 기사는 각각 7개와 4개이다. 그런데 神功紀에는 神功皇后 섭정 당시의 일을 전하며 각각 백제의 5, 6대 왕인 '肖古(背古)'(재위 166~214), '貴須(仇首)'(재위 214~234)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년론의 발단을 연 나카는 神功紀에서 枕流(15대)는 '貴須'의 아들이며, 枕流의 아들 阿花(17대)는 叔父 辰斯(16대)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는 기사－즉 枕流(15대)와 辰斯(16대)의 父祖가 肖古와 仇首라고 한 것을 근거로 '肖古'와 '貴須'를 각각 13대 近肖古王(재위 346~375)과 14대 近仇首王(재위 375~384)로 보았다. 이렇게 되면 대략 日本書紀의 기년－특히 神功과 應神의 기년에 120년을 더하면 대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 이른바 '2주갑 인하설'이 日本書紀의 기년에 대한 나카의 주장이었다.[24]

위의 인용문을 볼 때 日本書紀의 神功과 應神紀를 언급하며 백제의 13대 近肖古王에서 17대 阿花王(阿莘王)과의 관련성을 이야기한, 기년에 대한 이마니시의 생각은 나카의 주장과 대동소이했다고 하겠다. 비록 그는 "神功, 應神과 肖古, 仇首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썼지만, 이는 日本書紀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메모와 함께 첨부된 삼국과 일본의 기년을 비교한 표를 보면 이마니시 역시 나카와 마찬가지로 神功과 應神의 시대를 近肖古王과 近仇首王代로 보고, 120년가량 내려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日本書紀의 기록과 기년을 따르면 백제의 王統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日本書紀의 撰者가 "神功과 應神紀에 백제의 13대 近肖古王에서 17대 阿花王(阿莘王) 관련 기록을 넣은 것은 神功과 應神의 시대의 일이 近肖古王에서 阿花王에 이르는 시기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神功皇后에서 應神天皇의 시기를－日本書紀의 기년인 3세기가 아닌－三國史記의 기년에 가까운 4세기 이후의 사건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후에도 이마니시는 이러한 기년에 입각하여 神功皇后의 시대를 사고하며, 이를 보다 정교화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19년 여름 한국사

24) 那珂通世, 「外交繹史 卷之一－上世紀年考」, 『那珂通世遺書』, 大日本図書株式會社, 1915, 35~40쪽.(『那珂通世遺書』는 那珂의 사후 그의 평전과 생전 그의 주요 저작을 묶어 발간한 것으로, 본고에서 기년론 논의는 이 판본에 근거했다.)

전반에 대한 강연에서 이마니시는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을 설명하며, 그 시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仲哀天皇의 御世, 天皇과 皇后는 九州의 熊襲을 정벌하려 했지만, 天皇이 軍中에서 崩御하시자 皇后는 軍隊를 정비하여 질풍같은 기세로 新羅를 정벌했다. 이는 신라에서는 아마 婆娑尼師今의 시대로, 新羅史에서 西紀 80~112에 해당하는 王이라고 하지만 年代를 믿을 수 없다. 百濟에서는 近肖古王 頃(西紀 346~375)인데, 百濟의 年代는 믿을 수 있다.[25]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이마니시는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이 이루어졌을 당시 신라와 백제의 군주는 물론 그 재위 연대를 서력으로 명확하게 밝히면서, 이 사건을 "西紀 346~375"년, 바로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무렵의 일이라고 단언했다. 이 강연에서 이마니시는 "百濟의 年代"를 믿을 수 있는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1915년의 메모를 통해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日本書紀에서 神功皇后 당시의 사건을 전하며 百濟記, 百濟新撰 등에 의거해 近肖古王의 일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마니시의 설명을 따르면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은 4세기 이후-늦어도 4세기 중반의 일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외정의 전제 조건으로서 "日本 全體의 統一", 바로 조정의 힘이 일본 전체에 미치는 중앙 집권화를 꼽았으며, 이는 仲哀天皇을 지나 神功皇后에 이르러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마니시의 논의였다.[26] 즉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이마니시는 4세기에 들어서서 그 중반 즈음 일본 전체에 통일적인 집권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건설되었음을 상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이른 시기에 한반도 남부라는 해외를 경략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발전할 수

---

25) 今西龍, 「朝鮮史概說」,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1935, 118~119쪽.

26) 비록 今西가 1915년에 작성한 연대비교표는 神功皇后부터 연대가 제시되어 있어 그 이전의 기년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神功皇后 치세 직전이 仲哀天皇이며,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이 4세기 이후 근초고왕 당시인 346~375년 즈음으로 상정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가 상정한 仲哀의 치세는 아무리 빨라도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반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3. 문화적 연원으로서의 "支那文化"와 그 정수로서의 樂浪

앞서 언급했듯이 이마니시는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上代 일본의 모든 문화가 한반도를 통해 들어왔다는 시각을 거부하는 한편 일본이 신라에 비해 진보해 있었다며, 과거 문화적으로 신라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주장했다.[27] 이와 같이 상대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 이마니시는 삼국 가운데에서 신라에 집중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북방의 扶餘種의 국가 또는 이들이 유입되어 토착민들을 지배하며 성립한 국가였던 반면 신라는 주민 대부분이 한국인의 조상인 三韓(辰韓)의 韓種으로 구성되어 "三韓民族을 대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28] 그런데 고대 한일의 문화를 비교하여 일본의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 혹은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문화였다. 이마니시는 삼국의 문화도 일본의 문화도 모두 "支那로부터 전래했다"고 보았다. 즉 "지나문화"는 고대 한일 문화의 "淵源"으로서 한일이 공유하는 것이자 그 수용은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한일의 문화는 중국 문화라는 공통의 지평 위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마니시는 삼국과 일본(倭)이 각각 언제부터 "지나"와 교통했는가를 확인하였다.[29] 이마니시는 일본이 삼국보다 "오래된 국가(古國)"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史書에 삼국, 특히 신라에 비해 일본이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그 시작을 이루는 것은 樂浪의 바다 가운데 倭人들이 100여 개의 국가를 이루고 조공을 한다(樂浪海中有倭人分爲百餘國以歲時來献)

---

27) 今西가 말한 上代는 한국은 신라의 통일 이전, 일본은 大化改新 이전을 의미한다.(今西龍, 앞의 논문, 1910a, 39쪽.)

28) 今西는 조선민족은 三韓을 이룬 韓種族의 후예라고 보았으며, 한국사를 韓種族의 역사로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도면회,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歷史學報』 222, 2014, 76~81쪽; 정상우, 앞의 논문, 2017, 59~60쪽.

29) 今西龍, 앞의 논문, 1910a, 40쪽.

는 漢書 地理志의 기사였다. 그는 1세기 말에 편찬된 漢書에 “倭”가 등장한 반면 三韓을 전하는 기사가 없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후 이마니시는 중국의 여러 史書에서 삼국과 倭가 언제 등장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사서를 통해 볼 때 일본과 고구려는 기원후 1세기에는 이미 중국과 교통했고, 백제는 4세기 중반부터 국제교통을 시작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신라는 6세기에 들어서야 魏書에서 永平 元年(508)에 조공한 국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斯盧’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중국의 史書들에서 ‘倭人傳’은 상세한 반면 ‘新羅傳’은 7세기 전반에 편찬된 梁書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설정된다는 것에 주목했다.[30] 이처럼 강점 직후에 발표된 글을 통해 볼 때 이마니시는 한국 및 일본 양자 모두의 문화적 “연원”인 중국의 史書에 등장하는 시기를 통해 삼국과 일본의 중국 문화 도입 시기의 선후와 문화 발전의 정도를 이야하고자 했다. 한국 및 일본 양자 모두의 문화적 “연원”인 중국의 史書에 늦어도 1세기에 등장하며 중국과의 교통과 문화 수입의 흔적이 있는 일본이 6세기에서야 등장하는 신라보다 뒤처졌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어느 정도 開化한 國”이고, 일본은 그 개화의 정도가 고구려나 백제에 문화에 비해 잠시 뒤처진 경우는 있었어도 결코 “두 나라에 비해 開化가 뒤처진 國은 아니”었지만 결코 신라보다 열등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마니시의 결론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마니시에게 상대 일본이 신라를 통해 문화－“支那文化”－를 수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또 중국의 문화가 “백제나 고구려로부터 일본으로 遞傳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도 “모두 백제나 고구려에서 遞傳한 것”은 아니었다.[31] 이와 같이 이마니시는 상대 한일의 문화적 연원이자, 그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중국 문화를 상정했으며, 그 도입 시기가 삼국 – 특히 신라에 비해 일본이 앞섰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 문화의 수용에 있어 중국 본토로부터 동쪽에 설치된 한사군,

---

30) 今西龍,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接前), 『朝鮮』 32, 1910b, 22~23쪽.

31) 今西龍, 위의 논문, 1910b, 24쪽. 한편 신라는 5세기 말부터 급격히 진보하여 일본을 따라왔다는 것이 강점 당시 今西의 생각이었다.

특히 가장 오래 존속했던 낙랑군은 눈에 띄는 존재였다. 이마니시 역시 한일의 중국 문화 수용을 고찰함에 있어 "支那가 半島에 두었던 樂浪郡"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이 발달해 있었다는 첫 번째 근거로 든 漢書의 기록은 "倭가 樂浪海中"에 있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를 세운 扶餘民族은 반도에 남하하기 전부터 이미 "支那方面"과 교통하여 상당히 開化했던 반면 발전이 뒤처진 "新羅의 改化"에는 낙랑군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렇지만 "山中 하나의 小部落國"이었던 신라에게 "樂浪(낙랑의 문화 : 인용자)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낙랑군을 매개로 한 신라의 중국 문화 수용에 대해 이마니시는 회의적이었다.[32]

강점 당시 낙랑군에 대한 이마니시의 논의는 여기서 멈추었다. 즉 이마니시는 고대 한일의 발전을 고려함에 있어 낙랑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른 시기에 중국과 일본의 접촉이 확인되는 漢書의 기사에 '樂浪'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이 논문을 발표한 시기－1910년 9・10월－를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하다. 이때는 이마니시를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들이 평양 일대의 유적・유물을 낙랑군과 연결하지 못한 채 고구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대에 대해 처음으로 학술 조사를 벌인 것은 1909년 세키노가 이끄는 조사단이었다. 이들은 조사 당시 발견한 塼槨古墳을 "그 形狀, 樣式, 構造上에서 관찰하고, 副葬品에 비추어 보면 1,100년 이전의 것으로 당시 平壤에 도읍한 高句麗의 것임이 분명하다"고 알렸다.[33] 이처럼 평양에 남겨진 고분군을 모두 고구려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당시 반박하기 어려운 정설이었으며,[34] 강점 당시 이마니시 역시 이러한 견해를 따르

32) 今西龍, 앞의 논문, 1910a, 40~41쪽.

33) 栗山俊一, 「平壤開城の古墳」, 『韓紅葉』, 度支部建築所, 1909, 17쪽. 당시 關野는 대한제국 度支部 囑託의 자격으로, 栗山俊一, 谷井濟一 등을 대동하고 한국의 각지를 조사하며, 大同江面 上五里 石岩洞 古墳을 발견했다. 이들은 조사 이후 京城의 鐘路 廣通館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는데, 이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韓紅葉』이다.

34) 때문에 당시 이를 漢人의 분묘라고 주장한 鳥居龍藏은 크게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만년의 鳥居는 이에 대해 "漢人은 朝鮮에 이주하지 않았고, 심한 것은 樂浪, 帶方과 같은 것도 만주에 있었기 때문

고 있었다. 1909년 세키노 등의 조사 한 달 후 이마니시는 도쿄제대 교수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 1860~1924]를 수행하며 같은 고분을 조사할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병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8월에 발간된 『東京人類學會雜誌』에 당시 하기노와 이마니시가 조사한 평양 부근 고분 일대의 전경과 고분의 塼槨 모습이 사진으로 실렸다. 이에 대해 이마니시는 "平壤에서 西南 약 1里半 지점에 있는 高句麗 古墳"으로, "採集한 遺物은 현재 文科大學에서 修繕整理中"이며, 대동강 남안의 넓은 구릉지에 천 개에 달하는 "다수의 고구려 고분이 散布"한다고 전했다.[35] 이처럼 강점 당시 이마니시 역시 평양 일대의 고분을－낙랑이 아닌－고구려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니시를 비롯한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평양 일대의 고분군에 대한 견해를 빠르게 수정해 나갔다. 위에서 언급한 고분 사진과 설명이 실린 지 불과 2개월 후인 1910년 10월 세키노와 함께 조사 활동을 벌이던 야스이 세이이치[谷井濟一, 1880~1959]는 평양 일대의 고분군에 石槨과 塼槨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이마니시에게 전했다.[36] 즉 강점 이전부터 평양 일대의 유적을 조사해 온 이들은 강점 직후 이곳의 고분을 石槨古墳과 塼槨古墳으로 구분할 필요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11~12년에 걸쳐 세키노 등 일본인 연구자들은 평양, 황해도 일대의 유물·유적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며 塼槨古墳은 낙랑의 것, 石槨古墳은 고구려의 것이라고 확정했다.[37] 뿐만 아니라 黃海道 鳳山郡 嵋山面의 塼槨古墳에서는 '使君帶方太守張撫夷塼'이라고 새겨진 塼을 발견했고, 이 고분의 남쪽 약 1리에서 '唐土城'이라고 불리는 土壁에서 塼槨古墳에서 발굴한 것과 같은 문양이 있는 塼들을 발견하며, 이 일대가

에 저 漢의 遼東郡과 같은 것도 遼西에 있었다고 했"던 것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으며, 학계에서도 關野의 의견에 반론을 펼친 것을 "朝鮮研究의 authority에 대한 무례"로 받아들여졌다고 회고했다.(鳥居龍藏, 『ある老學徒の手記』, 朝日新聞社, 1953, 170쪽.)

35) 今西龍,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東京人類學會雜誌』 25-293, 1910, 431~432쪽.

36) 谷井濟一, 「朝鮮平壤附近古蹟調査」, 『東京人類學會雜誌』 26-295, 1910, 37~38쪽. 이때 谷井의 조사는 1910년 10월 6일과 7일 이틀간이었으며, 조사 결과 石槨古墳은 고구려의 것으로 보이지만, 塼槨古墳은 둘러보지 못한 채 돌아간다는 사정을 전하고 있다.

37) 關野貞, 「朝鮮文化ノ遺蹟 其二」,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1914, 34쪽.(『朝鮮古蹟調査略報告』는 1911년과 1912년 朝鮮總督府 囑託으로서 조선 각지의 고적을 조사한 關野 등의 조사 결과 보고를 조선총독부에서 묶어 간행한 것이다.)

낙랑·대방군과 밀접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38]

이렇게 평양과 낙랑군의 관련성이 점차 드러나던 1912년 이마니시 역시 평양 일대 고분군에 대한 과거 자신의 과거 견해를 부정하는,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가 주목한 것은 1909년 자신이 직접 조사했으며, 1910년 8월에 발간된 『東京人類學會雜誌』에 그 사진과 더불어 이를 고구려 고분이라고 전한 평양 부근의 塼槨古墳의 수습 유물 중 鍍金된 覆輪金具에서 발견한 "王通"으로 보이는 두 글자였다. 이마니시는 大同江이 漢書 地理志에서 전하는 列水라는 전제하에 衛氏朝鮮의 수도인 王儉城 및 낙랑군의 郡治가 평양 부근이었을 것이라며 논의를 전개했다. 그는 고작 3代 70여간 존속했던 衛氏朝鮮이 평양에 산포한 수많은 고분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두 글자가 낙랑·대방과 관련된 人名이라는 가정 아래 柳得恭의 四郡志, 韓致奫의 海東繹史, 韓鎭書의 海東繹史 續에 기록된 낙랑·대방의 인물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史書와 新撰姓氏錄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평양의 土豪 가운데 낙랑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에 남긴 이들은 王氏뿐이며, "王氏는 樂浪의 一大 豪族이자, 樂浪 유일의 望族으로 번성했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마니시는 "王通"으로 보이는 글자가 새겨진 유물이 발굴된 고분을 고구려의 것으로 본 과거 자신의 견해 오류였으며, 이를 樂浪 王氏로 대변되는 낙랑의 漢人들이 남긴 것으로 결론지었다.[39] 즉 평양 일대의 塼槨古墳이 낙랑군의 것이라고 확증됨에 따라 이마니시 역시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이 1910년대 전반, 고고학적 발굴에 근거한 논의가 전개되는 한편에서는 낙랑군의 경계 및 소속 縣의 위치를 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낙랑군의 3水(浿水, 帶水, 列水)에 대한 比定이 문헌과 지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마니시는 近肖古王이 遷都한 漢山의 위치를 논의하며 漢江을 帶水에 비정하는[40] 한편 츠다 쇼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는 浿水를 압록강

38) 谷井濟一, 「黃海道鳳山郡ニ於ケル漢種族ノ遺蹟」,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1914, 45~54쪽.
39) 今西龍,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 1912, 96~104쪽.
40) 今西龍, 「百濟國都漢山考」,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278~280쪽.(이 논문은 1912년 1월에 발간된 『史學雜誌』 23-1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된 것인데, 여기서는 今西 사후인 1934년에 발간된

으로 고정한 선상에서, 서쪽으로 흘러 낙랑군 소속 黏蟬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는 列水[41]는 대동강이라며, 낙랑군 소속 현들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비정한 것이다.[42]

이렇게 유물과 문헌 양측을 통해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던 1913년 9월, 이마니시는 세키노 등의 조사팀에 합류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이마니시와 야스이는 낙랑군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바로 於乙洞 古城 부근에서 樂浪郡 시대의 古瓦片과 '黏蟬'이라는 글자가 두 곳에 새겨진 古碑를 발견한 것이다. 당시 조사단은 이 발견으로 於乙洞古城이 秧蟬縣治이고, 列水가 대동강임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상 오래된 의문이 비로소 해결"되었다고[43] 높게 평가했음은 물론 이러한 견해는 일본인 연구자 사이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중국의 군현으로서 기원전 108년에 설치되어 313년까지, 무려 420여 년간 존속했던 낙랑군이 평양 일대였다는 것은 기원전부터 시작된 한국사의 타율성을 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당시의 이동 수단이나 항해술 등을 생각했을 때 중국의 군현이 한반도의 대동강 주변에 있었다는 것은 문화 발전의 "연원"이었던 "지나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조건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중국 문화 수용에 대한 이마니시의 생각 역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9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교토제대에서 '朝鮮史概說'이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하루의 강의를 1편으로 하여, 총 6편으로 이루어진 이 강연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開國傳說'에서 '李氏朝鮮'(肅宗代)까지를 다루었지만, 고대사에 대한 사항이 전체의 2/3 이상의 분량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마니시는 강연의 초두에, 한국사는 "韓民族의

『百濟史硏究』에 실린 판본을 활용하였다.)

41) 『漢書』 地理志 樂浪郡條. 分黎山, 列水所出, 西至黏蟬入海.

42) 津田左右吉, 「浿水考」, 『東洋學報』 2-2, 1912, 211~227쪽.

43) 關野貞, 「朝鮮に於ける樂浪帶方時代の遺蹟」, 『人類學雜誌』 29-10, 1914, 380~386쪽; 谷井濟一, 「朝鮮平壤附近に於る新たる發見せられた樂浪郡の遺蹟」 上, 『考古學雜誌』 4-8, 1914, 19~25쪽.

歷史"로, "今日의 朝鮮民族에는 扶餘種이 混成"되었다며 논의의 범위에 신라는 물론 고구려와 백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강연 '朝鮮史概說'의 논의 범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마니시는 "오직 韓民族만이 아니라 極東諸民族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 半島에서의 支那 郡縣의 盛衰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44] 2일차 강연(강연문 2편)을 "漢の郡縣及び三韓"이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그는 漢武帝가 설치한 4군 가운데 衛滿朝鮮 이래 중국인이 다수였던 지역, 즉 "漢民族의 땅"에 설치된 낙랑군에서만 "純然한 郡縣制度"가 행해졌고, 黏蟬縣碑의 발견으로 列水가 대동강, 帶水가 한강인 것이 확실해졌다며,[45] 낙랑군의 위치가 대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한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부에 걸쳐 있었고, 대방군은 그 아래 지역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 본국(漢, 魏)의 상황 변화에 따른 낙랑군과 대방군의 성쇠와 이 두 郡이 "極東諸民族"－바로 한국과 일본을 구성하는 민족에게 끼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 前漢 末의 대란으로 (낙랑군에 대한 : 인용자) 本國으로부터의 지배력이 쇠퇴하고, 土豪가 점차 세력을 얻어, 後漢 初에 王調라는 자는 太守를 죽이고…다행히 光武帝가 파견한 새로운 太守는 다른 토호의 援助를 얻어 亂을 평정하였지만…單單大嶺 동쪽의 7縣을 放棄했다. 樂浪郡의 설치는 日本島住民 즉 倭人과 漢人의 교통을 容易하게 하였다. 양 지방의 교통은 朝鮮 江華의 방면으로부터 沿岸을 南下하여 지금의 金海 지방에 이르고, 對馬・壹岐를 거쳐 九州에 들어가고 다시 瀨戶內海를 동쪽으로 항해하여 幾內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山陰道 沿岸의 항로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다. 後漢 桓帝의 때(西紀 147~162)에 이르러, 북방으로는 高句麗種族이 興起하고 남방으로는 漢文明의 영향을 받은 韓種族・濊種族이 興起하였는데, 郡縣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서 樂浪의 人民도 많이 韓・濊로 유입되었다.…이 무렵 漢 本國에서도 큰 亂이 일어나, 公孫氏가 遼東에 割據하고 그 2世인 公孫康(西紀 207~220)은 樂浪의 경영에 주의하여 屯有縣 이남의 荒地에 帶方郡을 新設하고, 將을 보내어 遺民을 모아 韓・濊를 토벌하여 樂浪・帶方

44) 今西龍, 「朝鮮史概說」, 『朝鮮史の栞』, 1935, 近澤書店, 77쪽.
45) 今西龍, 위의 책, 92~93쪽.

의 위엄이 다소 높아졌지만…公孫氏는 魏 景初 2년(西紀 238) 魏에게 멸망당했다. 魏의 明帝는 이 해 혹은 그 前年에 은밀히 2郡의 太守를 임명하고, 遼東을 經由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2郡을 평정함으로써 魏의 위엄은 멀리 倭國에도 들렸다. 이에 倭의 여왕 卑彌呼의 使節이 帶方에 오고, 魏使도 倭國에 왔다. 魏志에 기록된 유명한 倭人傳은 이 使節의 見聞을 魚豢이 魏略에 기록했던 것이다.[46] (밑줄은 인용자)

다소 길게 인용한 위의 인용문은 이마니시가 말한 낙랑과 대방이 "極東諸民族"에게 끼친 영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강점 당시 이마니시는 중국의 史書에 삼국과 일본의 등장 시기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낙랑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이마니시는 중국 史書에 韓·倭가 등장하는 시기에 몰두하지 않고 樂浪으로부터 江華－金海－對馬－壹岐－九州에 이르는 항로를 통한 낙랑과 일본의 교통을 통해 일본이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쉬워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 이마니시는 명기하지 않았지만, 前漢 말 樂浪郡의 혼란을 설명한 이후 樂浪과 일본의 교통을 서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시기를 아무리 늦어도 前漢末－기원 전후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강점 직후 한서 지리지의 기사를 통해 1세기 말 낙랑군과 일본의 교통을 이야기했던 이마니시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한 것이며, 이는 일본민족이 발흥한 시기를 끌어 올린 것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3세기 이후 遼東의 추이 및 대방군의 연혁을 간단히 제시하고, 이러한 서술을 중국(魏)과 일본(倭)의 교통으로 매듭지었다. 당시(西紀 238)의 일을 전하는 魏志 倭人傳이라는 중국 史書의 기사를 근거로[47] 한반도에 있었던 중국 군현－대방군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서술한 것이다. 반면 韓種族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西紀 147~162"라는 연대를 명기하고, 이때에 이르러 "漢文明의 영향"을 받아

46) 今西龍, 위의 책, 95~97쪽.

47) 『三國志』魏書 倭人傳.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将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 制詔親魏倭王卑彌呼 帶方太守劉夏遣使送汝大夫難升米…汝所在踰遠 乃遣使貢獻 是汝之忠孝 我甚哀汝 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裝封付帶方太守假授汝.

興起했으며, 낙랑의 유민을 받아들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강점 직후의 논의와 비교해 볼 때 이마니시는-별다른 근거없이-중국과 교통할 정도로 일본이 성장한 시기를 1세기 말에서 기원 전후로 상향하면서, 韓種族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2세기 중반에 흥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내에 낙랑군이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민족이 韓種族에 비하여 낙랑을 통해 중국 문화를 수용하여 흥기한 시점이 100여 년 이상 앞섰다는 주장이었다. 즉 고대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문화적 "연원"인 중국 문화의 도입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진보의 정도가 빨랐다는 이마니시의 생각은 변함없었으며, 오히려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 일대로 확정됨에 따라 낙랑과 대방이라는 한반도 내의 중국 군현을 통한 일본의 對 중국 교통은 더욱 편리해졌고, 지속되었다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특히 魏志 倭人傳에는 이마니시가 대방군을 매개로 한 중국과 일본의 교통을 전하는 "景初 2년(西紀 238)"의 내용만이 아니라 正始 元年(240)에서 8년(247)까지 8년간의 4차례의 중국과 일본의 교통에 대한 사항도 실려있으며, 이마니시 역시 魏志 倭人傳에 3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교통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3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던 중국과 일본의 빈번한 교통은 당시 일본의 국가 체제와 문화 수준이 중국 문화의 수용을 요구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는 것, 또 계속된 중국과의 교통은 지속적으로 중국 문화를 수용하여 일본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점 이후 낙랑군과 대방군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유물을 발견했던 이마니시에게 이 두 郡은 중국과 일본의 교통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였다. 기원 전후부터 일본은 낙랑으로부터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으며, 대방을 통해 3세기 중반에도 중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즉 낙랑으로 대변되는 한반도의 중국 군현은 일본에게는 중국 문명의 공급처이자 매개물이었다. 그런데 낙랑은 중국 본토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평양 일대에 있었다. 이는 일본과의 교통에는 편리한 것이었지만 중국 본토에서 보자면 멀리 떨어져 있어 정치적·문화적으로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니시는 일본이 받아들인 중국 문화, 바로 낙랑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정수였다고 보았다. 앞선 교토제대에서의 강연 이후 낙랑이나 대방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던 이마니시는 1928년 7월 '樂浪帶方に就きて'라는 강연을 통해 漢四郡 설치 전후부터 낙랑과 대방의 멸망 및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까지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서 이마니시는 列水가 대동강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음운학적인 관점에서 논증하며[48] 이 일대에 낙랑, 그리고 그 남부에 대방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후 자신이 이전부터 주장했던 낙랑, 대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후 그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五胡의 大亂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반도에 있던 낙랑, 대방 두 군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덧붙였다. 즉 중국 민족들의 세력이 크게 꺾여 한반도에 있던 군현에 대해 지배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낙랑과 대방을 병합하여, 313년 두 군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辰韓의 땅에서 일어난 신라가 任那諸國을 병탄하게 되자, 任那의 小國들이 일본에 구원을 요청하여 神功皇后의 威武가 반도에 이르게 되어, 일본은 任那諸國을 근거로 하여 신라를 억누르고 백제를 옹호하며 고구려와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9] 즉 일본은 기원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낙랑과 대방을 통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며 성장하는 한편 3세기 말 4세기 초 五胡의 흥기라는 대륙의 정세 변동 속에 낙랑과 대방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扶餘種 및 韓種族의 국가인 삼국이 반도에서 대두하는 가운데 그 존망이 위태로워진 任那의 여러 小國들이 일본에 구원을 요청한 결과 神功皇后의 정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대치라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마니시가 그렸던, 기원 전후에서 4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歷史像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낙랑과 대방 문화의 성격에 대한 이마니시의 지적이다. 이마니시는 평양 일대는 낙랑군 설치 이전부터 중국인이 다수

48) 今西龍, 「樂浪帶方に就きて」, 『文交の朝鮮』 41, 1929, 22~25쪽.
49) 今西龍, 위의 논문, 33~34쪽.

였던 지역이라고 보았다. 秦末漢初의 혼란기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으며, 이러한 중국인에 의해 건국된 衛滿朝鮮은 韓民族을 피치자로 성립된 "支那人 主權國"으로, 그 중심지인 평양 일대의 王儉城은 山東지역과 대동강(=列水) 사이의 무역으로 중국인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漢四郡 가운데 낙랑군이 가장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인이 다수인 지역이어서, 그 통치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이다.[50] 소재지는 "半島"이지만 "支那民族의 郡縣"인 낙랑의 문화는 모두 "支那民族의 文化"임은 물론 평양 일대의 토지는 "北支那 지방에 비해 肥美하여 인민이 饒樂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풍요로웠던 낙랑 일대에 무역이 번성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支那本國과의 교통은 遼東을 경유하는 陸路 외에 山東方面과의 해상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大同江口 즉 列口에는 쌍방의 선박 왕래가 빈번했다고 생각한다. 山東半島 南岸 港灣에는 中部, 南部의 支那貨物이 海洲를 거쳐 聚集했고, 北岸에는 北支那 貨物이 聚集했기 때문에 山東과의 교통은 全支那海岸과의 교통을 의미했다.…樂浪과 支那諸地方과의 交通은 支那內地의 邊郡 등과 같은 불편이 없었다. 마침내 吳越의 선박까지도 列口에 왔다고 추측된다.…辰韓의 방면으로 單單大嶺 즉 지금의 鐵嶺邊으로 넘어와 元山方面으로 나와서 海岸을 남하하는 半陸半水의 통로도 있고, 日本으로는 江華나 仁川의 邊으로부터 船이 나와 반도의 서해안을 남하하고 다시 남해안에 沿하여 金海方面에 이르러 對馬・壹岐를 지나 松浦地方에 도착하는 것이다.…(支那) 本國과의 교통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邊郡이었지만 文化에서는 뒤처지는 일이 없었으며, 더군다나 本國과 직접 토지를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本國 擾亂의 영향을 받는 일도 비교적 적었다. 이점에서는 幽僻의 별천지였다. 따라서 本國 文物의 繼承保存에 특수한 위치를 점했던 것으로 보인다.…樂浪帶方이 東方 여러 지방의 특산물을 聚集하여 支那本國에 보내 획득한 이익은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2郡에는 毛皮類 등도 奧地로부터 나온 듯하다. 또 辰韓으로부터 나온 鐵은 다대하게 本國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50) 今西龍, 위의 논문, 26~29쪽.

여러 지방으로부터 砂金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51]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나듯이 山東에는 중국 전역의 문물이 운집했고, 낙랑과 대방은 "東方"의 산물을 모았으며, 大同江口(=列口)에서 양지의 무역은 번성했다는 것이다. 山東과 大同江口를 매개로 "支那內地의 邊郡" 보다도 중국의 여러 지방과 교통이 편리했던 낙랑과 대방은 중국 전역의 문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결코 문화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었다. 오히려 본국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본토가 혼란스러워도 그 문화를 온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낙랑과 대방으로, 이곳의 문화는 당대 중국 문화의 정수였다. 즉 낙랑과 대방을 통해 일본은 당대 최고 수준의 문화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마니시의 주장은 1920년대 새롭게 발굴・연구된 낙랑의 유물에 대한 성과들에 기반한 것이었다. 강점 전후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 각종 법령 등을 정비하며 체계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가운데 지속되었다. 특히 1924년 평양 일대의 낙랑 고분에서 제작 연대와 장소, 官人 등이 새겨진 이른바 '紀年銘' 칠기가 대거 발굴되어,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1866~1934] 등과 같은 당대 학계의 최고 대가들도 이 명문의 해석에 뛰어드는 한편, 이 유물들이 당시 중국의 四川省 일대인 蜀郡과 廣漢郡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며,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평양 일대의 낙랑 유물・유적을 '漢文化의 精髓'이자 '直系'로 평가했던 것이다.[52] 이렇게 이마니시가 낙랑과 중국 본토와의 활발한 교류를 상정하고 그 문화를 "본국 문물의 繼承保存"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192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발굴과 연구 성과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낙랑과 대방의 문화가 중국 본토 문화의 정수였다는 선상에서 이마니시는 두 郡이 한반도에서 소멸한 이후 그 人民들은 고구려나 반도의 여러 지방 및 日本에 흘러와서 定住해, 그 문화를 전파했다며 과거 자신이 발표했던 樂

51) 今西龍, 위의 논문, 34~35쪽.
52) 오영찬, 「'낙랑칠기' 연구와 식민지주의」, 『百濟硏究』 49, 2013, 97~99쪽.

浪 王氏에 대한 연구를 거론했다. 그는 자신이 이 논문을 작성할 당시 “두 郡의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本國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 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중국은 五胡의 흥기로 “亂離의 狀態”였기 때문에 낙랑과 대방의 유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과거 자신의 “생각은 오류”였고, 이들은 다른 민족 속으로 유입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일본의 上代에 來投한 漢人의 다수는 2郡의 漢人 또는 그 자손이라는 것이다. 일본만이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서도 文藝나 工藝에 종사한 博士 대부분은 두 郡의 漢人 또는 그 자손이라는 것이 이마니시의 설명이었다.[53] 이를 연구 초기 이래 上代 일본으로 유입된 문화가 신라를 통했을 리 없으며, 일부 문화가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 들어왔다는 논의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이마니시의 이러한 서술은 백제의 문화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로 이마니시는 阿直支와 王仁으로 대변되는 일본으로 들어온 백제의 문화는 모두 “支那의 문화가 백제를 경유”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54]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마니시에게 중국 문화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연원”이었으며, 낙랑과 대방은 그 정수를 간직한 곳이었다. 이마니시가 볼 때 낙랑과 대방은 극동 아시아로 중국 문화를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였으며, 일본은 이 두 郡을 통해 기원 전후부터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이른 시기에 통일적인 집권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4세기 神功皇后가 신라를 정벌하며,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歷史像을 제시한 것이다.

4. 결어

가장 대표적인 식민주의 역사학자 중 하나로 한국고대사 연구에 매진했던 이마니시 류의 연구가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20세기 전반 일본의 대륙침략이라는

53) 今西龍, 앞의 논문, 1929, 36~37쪽.
54) 今西龍, 「百濟略史」,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15~16쪽.

역사적 국면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역사학계라는 자장 속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낙랑·대방과 관련하여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두 군은 한반도에 있었지만, 당대 중국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곳으로 파악했으며, 이마니시 역시 이러한 연구자 가운데 하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마니시를 비롯한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낙랑과 대방이라는, 한반도에 있던 중국의 군현에 대해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원 전후부터 한국사에 드리워진 외세의 힘을 강조하며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歷史像을 제시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낙랑과 대방에 대한 관심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1920년대 중반 낙랑칠기의 발굴 이래 나이토 코난 등과 같은 당대 최고의 대가들이 그 명문의 해석에 뛰어들 정도로 낙랑의 문화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낙랑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정수"이자 "직계"라며, 낙랑과 대방을 통한 교통 및 두 군 소멸 이후 유민의 이동은 동북아시아 각지로 중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낙랑과 대방의 문화는 한·중·일의 문화-'동양문화'-를 해명하는 데에 결정적인 것이었다. 즉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낙랑과 대방에 대한 발굴과 연구는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像을 만들고 이를 명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의 발견만이 아니라 고대 일본의 문화를 비롯한 '동양문화'를 해명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으로 퍼진 낙랑과 대방의 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이마니시는 "朝鮮半島에서는 樂浪帶方을 이은 文藝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여서, 오래된 문헌을 잃었고, 또 그 후에 이입된 새로운 支那文化 때문에 변화했지만, 일본에서는 古典 또는 遺文 속에 樂浪과 帶方으로부터 온 그대로 모습의 片鱗이 남아 있다"며,[55]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 古事記와 日本書紀로 대표되는 "일본의 古典"과 "遺文"의 가치를 재론하였다. 그의 사후 나이토 코난은 이마니시의 연구법에 대하여, 일본의 고대

55) 今西龍, 앞의 논문, 1929, 37쪽.

사 연구자들이 日本書紀의 紀年에 의문을 품고, 그 유력한 방증으로 한국고대사의 기년을 참고하고, 심지어는 記事의 내용까지도 "朝鮮古史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이마니시는 "양국 古史의 근본적 연구와 아울러 종래의 연구법을 一變해 日本古史에 실린 史實에 중점을 두어, 양국 古史의 연구법에 일대 변화를 주었다"고 평했다.[56] 즉 그 신빙성을 의심받던 기기를 비롯한 "일본의 古典"은 이마니시에 의해 중국은 물론 한일이 공유하는 중국 문화의 정수인 낙랑과 대방 문화의 "편린"이 남아 있어, 그 해명을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사료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일의 고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일본의 古史에 실린 史實에 중요성을 두었다는 것은 한국고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마니시의 연구가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인 像을 그려냄과 동시에 일본사를 향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동양'의 형성에 일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마니시의 연구를 당시 일본에서 형성되어 가던 근대 역사학의 전개 과정, 바로 일본의 과거를 근대국가 = 제국 일본의 과거로서 해명·정립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 공간인 '동양'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생각에서 이마니시 류의 연구에 나타나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논의들을 임나일본부와 낙랑·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것이 일본사의 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강점 이전부터 한국을 직접 조사해 본 경험이 있던 이마니시는 강점을 전후하여 일본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한일의 인종적·역사적 근원을 동일하게 본 일선동조론류의 논의에 선을 긋고, 한일은 빈번한 "교통"에 따른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고대 일본이 삼한과 신라에 비해 진보해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그의 연구 과정 내내 지속되었던 것으로, 고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이었다. 수차례의 고고학적 조사에도 어떠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마니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56) 今西龍, 「序」, 『百濟史硏究』, 近澤書店, 1934, 4~6쪽. 今西 사후 출간된 이 책의 「序」는 內藤湖南이 썼다.

그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일본 세력의 성쇠를 일본의 국가 발전과 연결지었다. 즉 일본 朝廷의 집권력이 일본 전체에 미칠 정도로 발전·성숙해야 백제와 신라의 성장에 따라 계속해서 압박을 받던 加羅(任那) 小國들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외정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 바로 神功皇后의 신라 정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神功皇后代에 이르러 통일적인 집권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했으며, 이러한 내부적 역량을 바탕으로 신라 정벌을 단행한 이래 雄略天皇代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세력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또 神功皇后에 의한 신라 정벌의 시기를, 나카 미치요와 마찬가지로 日本書紀의 기년에 대략 120여 년을 더하는 기년론에 입각하여, 4세기 초·중반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일본에서 4세기에 들어 집권력을 갖춘 국가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발전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찍부터 선진적인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강점 당시 이마니시는 중국 문화를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연원"으로 위치짓고, 중국 사서에 삼국과 일본이 등장하는 시기에 있어 일본이 앞선다는 것을 중심으로 고대 일본의 발전을 이야기하였다. 강점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이 평양 일대의 고분군을 낙랑군과 연결짓는 가운데 낙랑군을 평양 일대로 비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유물을 발견했던 이마니시는 중국과 일본의 교류를 낙랑군과 일본의 교통으로 치환하고, 그 시기를 기원 전후로 소급하였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이마니시는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랑을 통한 문화의 섭취에 일본이 韓種族보다도 앞설 수 있었던 이유-또는 韓種族이 낙후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낙랑으로부터 江華-金海-對馬-壹岐-九州라는 항로를 따라 일본이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3세기 중반까지도 대방을 통해 魏와 倭가 계속해서 접촉을 이어갔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낙랑의 문화를 당대 중국 문화의 정수로 파악했던 일본인 연구자들과 시각을 함께 했던 이마니시에게 일본이 기원 전후이래 낙랑과 대방을 통해 수용한 중국 문화는 당시 최고 수준의 것이었으며, 이러한 문화 수용이 일본의 발전에 중요한 자양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낙랑과 대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마니시는 기원 전후 이래 중국 문화를 수용하며, 성장을 거듭한 일본은 4세기에 접어들어 통일적인 집권력을 갖춘 국가로 성숙했으며, 4세기 초 두 郡이 한반도에서 소멸하는 한편 삼국이 정립되는 가운데 신라의 압력으로 위협을 받던 任那 小國들의 구원을 위해 神功皇后가 신라 정벌을 단행함으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간다는 역사상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고대사를 연구했던 다른 일본인 역사가들 역시 이러한 이마니시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 특히 韓種族보다는 '반도'라는 지형과 이곳에 미친 대륙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와 같은 연구자는 어떠한 고대사상을 그려내었을까? 또 이마니시는 일본서기의 기년을 조정하며 그 신빙성을 높이고, 기기로 대변되는 일본 "古典"의 가치를 재론하며, 자신의 역사상을 그려내는 데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 등과 같이 기기가 전하는 史實을 신빙하지 않은 이들은 어떠한 역사상을 그려내었을까? 이에 대한 탐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한편 이마니시에게 중국 문화는 중국만의 것이 아닌 한일이 문화적 "연원"으로서 모두 공유하는 '동양'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문화-'동양문화'-의 공유만으로는 일본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은 설명될 수 없었다. 비록 일본은 이른 시기부터 '동양문화'의 정수를 수용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문화의 본산인 중국은 물론 그 문화를 수용한 한국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낙랑과 대방의 문화를 당대 중국 문화의 정수라며, 그 수용을 이야기했던 이마니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가들은 중국 문화의 수용만큼이나 일본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야기하여, 일본의 성공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이마니시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의 강연 '朝鮮の文化'에서 이마니시는 한국과 일본의 國體思想을 年號의 사용 여부를 근거로 각각 "王國主義"와 "帝國主義"로 정리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시종일관 獨立國이었던 반면 한국은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을 연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중국의 연호를 받아쓰며 독립국으로

서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57] 한편 이마니시는 죽기 4개월 전인 1932년 1월 중국인들은 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支那"야 말로 "帝國主義의 本家"라는 글을 남겼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皇帝, 즉 天子가 世界를 다스리며, 황제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천자의 신하라는 관념에서 대등한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변국을 屬國으로 삼고 朝貢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만이 천자가 다스리는 독립국이며, 한국도 일본도 모두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과는 결코 대등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반면 일본은 "支那의 思想"을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나"와 대등한 국가이자 독립국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58] 이러한 언급을 볼 때 이마니시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수용했다는 선상에서 자신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수용에 있어 일본만의 독자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즉 그는 중국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지키고 있었던 일본만의 특수성, 또는 중국 문화의 일본적 변용을 드러낼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지만 이는 이마니시만 해명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중국을 "지나"로 상대화하고, 그 문화를 '동양문화'로서 일본까지 공유했다고 생각했던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모두 답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그렇다면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독자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萬世一系의 天皇'이라는 일본의 국체이자 이를 유지해 온 일본사의 특수성 외에 또 다른 답을 제시했을까? 이 역시 추후의 해명 과제로 삼겠다.

57) 今西龍, 앞의 책, 1935, 183~189쪽.
58) 今西龍, 「支那の帝國主義が及ぼせる日韓の關係」, 『朝鮮及滿洲』 290, 1932, 19~23쪽.

▌참고문헌

1. 사료

『漢書』 地理志. 『三國志』 魏書 倭人傳.

關野貞 等, 『韓紅葉』, 度支部建築所, 1909.

_____, 『朝鮮古蹟調査略報告』, 朝鮮總督府, 1914.

今西龍,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_____, 『朝鮮史の栞』, 近澤書店, 1935.

那珂通世, 『那珂通世遺書』, 大日本図書株式會社,1915.

鳥居龍藏, 『ある老學徒の手記』, 朝日新聞社, 1953.

谷井濟一, 「朝鮮平壤附近古蹟調査」, 『東京人類學會雜誌』 26-295, 1910.

_____, 「朝鮮平壤附近に於る新たる發見せられた樂浪郡の遺蹟」 上, 『考古學雜誌』 4-8, 1914.

關野貞, 「朝鮮に於ける樂浪帶方時代の遺蹟」, 『人類學雜誌』 29-10, 1914.

今西龍, 「朝鮮平壤郡大同江南の古墳」, 『東京人類學會雜誌』 25-293, 1910.

_____,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 『朝鮮』 31, 1910a.

_____, 「日韓上代文化と其關係に就て」(接前), 『朝鮮』 32, 1910b.

_____, 「大同江南の古墳と樂浪王氏との關係」, 『東洋學報』 2-1, 1912.

_____, 「日本と新羅との年代の比較に就て」, 1915.

_____, 「任那に就て」, 『朝鮮彙報』 1918-2, 1918.

_____, 「加羅疆域考」(上), 『史林』 4-3, 1919a.

_____, 「加羅疆域考」(下), 『史林』 4-4, 1919b.

_____, 「樂浪帶方に就きて」, 『文交の朝鮮』 41, 1929.

_____, 「支那の帝國主義が及ぼせる日韓の關係」, 『朝鮮及滿洲』 290, 1932.

津田左右吉, 「浿水考」, 『東洋學報』 2-2, 1912.

2. 연구성과

나가하라 게이지 지음,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三品彰英, 『增補日鮮神話傳說の研究』(三品彰英論文集 第4卷), 平凡社, 1972.

신현승, 『제국 지식인의 패러독스와 역사철학』, 태학사, 2015.

李基白, 『國史新論』, 泰成社 1961.

Stefan Tanaka, *Japan's Orient :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도면회,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과 한국사 구성 체계」, 『歷史學報』 222, 2014.

류시현, 「한말 일제 초 한반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반도' 논의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37, 2007.

濱下武志, 「동아시아 地政文化는 성립하는가?－'동양사'의 출현과 근대 일본」, 『大東文化研究』 63, 2008.

심희찬, 「근대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이마니시 류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韓國史學史學報』 28, 2013.
_____,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발전과 '조선'의 위상」, 『동서인문학』 52, 2016.
오영찬, 「'낙랑칠기' 연구와 식민지주의」, 『百濟硏究』 49, 2013.
_____, 「근대 역사학과 낙랑군」, 2016년 2월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6.
이영훈・오영찬, 『낙랑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2001.
정상우, 「1910~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의 학술조사사업」, 『역사와 현실』 68, 2008.
_____, 「『朝鮮史』(조선사편수회 간행) 편찬과 만선사의 상관성」, 『만주연구』 24, 2017.
_____,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 『한국문화』 87, 2019.
정인성,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 『湖南考古學報』 24, 2006.
_____,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韓國上古史學報』 71, 2011.
정준영,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2017.
주경미, 「의도된 오독－일제강점기 낙랑문양의 창출」,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2016.
崔在錫, 「今西龍의 韓國古代史論批判」, 『韓國學報』 13-1, 1987.

Japanese and Chinese history in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Focus on *Imanishi Ryu*(今西龍)'s Research about Japanese Ministry of Imna(任那日本府) and Lelang-Daifang Commandery(樂浪・帶方郡)－

Jeong, Sang Woo*

Most of the studies by *Imanishi Ryu*, one of the leading historians of the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were about ancient Korean history. And it is indisputable that his work advocated Japanese aggression and colonial rule to Korea. However, his studies were not only in the historical phase of Japan's invasion to the contin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also in the magnetic field of Japanese academia of history at that tim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how *Imanishi*'s research on the Japanese Ministry of Imna and Lelang-Daifang Commandery were linked to the explanation of ancient Japanese history.

Imanishi, who had investigated Korea before the colonial rule, believed it all the time that Korea and Japan had a "dominance-subordinance" relationship based on frequent "transportation" and that ancient Japan was more advanced than Samhan and Silla. What symbolized Japan's dominance over ancient Korea was that it dominated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no relics had not been found in sever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Imanishi's belief in the Japanese ministry of Imna remained unwavering. In

*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Dept. of Basic Education / Associate Professor

particular, he linked the rise and fall of Japanese power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state. In other words, it was possible to conquer Silla by Empress Jingu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s power was mature enough to affect Japan as a whole. This meant that by the time of the Empress *Jingu*'s reign, a state with unified power was established in ancient Japan. Based on these internal capabilities, it was explained that the Japanese power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reached its heyday from conquering Silla by the Empress *Jingu* until the reign of Emperor *Yūryaku.* And *Imanishi* regarded the time when the Empress *Jingu* conquered Silla, based on the year adjustment, which adds 120 years to *Nihon Shoki*'s Calendar year, like *Naka michiyo*, as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at the latest. This meant that in the 4th century, a unified state that stretched its power to the whole of Japan emerged.

The reason Japan was able to make progress in this early period was because it adopted advanced Chinese culture early. *Imanishi* argued that both Korean and Japanese cultures originated from Chinese culture, and argued that ancient Japan was more advanced than Korea on the grounds that Japan adopted Chinese culture before Korea. After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researchers linked the tomb clusters in Pyongyang with Lelang Commandery, and *Imanishi* discovered a decisive relic proving that Lelang Commandery was in Pyongyang. Since then, *Imanishi* replaced the exchanges between China and Japan with transport between Lelang Commandery and Japan, insisting that this exchange began around A.D. In addition, he said that China and Japan continued to maintain contact through Daifang Commandery until the middle of the 3rd century. At the time, Japanese researchers agreed that the essence of Chinese culture was preserved in Lelang-Daifang Commandery, although they were locat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anishi* was also one of these researchers. This also meant that the Chinese

culture that Japan had embraced throughLelang-Daifang Commandery since around A.D. was the highest level at the time, and that this culture acceptance was an important nutrient for the development of Japan. *Imanishi*'s discussion about Lelang-Daifang Commandery was that Japan grew up to embrace Chinese culture since around A.D. and matured into a unified state in the 4th century. In addition, he suggested that in the early 4th century, while the Lelang -Daifang Commandery disappear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kingdoms were established, and in order to save the small states of Imna from the pressure of Silla and Baekje, Empress *Jingu* conquered Silla. As a result, Imanishi suggested that a new historical phase of East A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as developed after 4th century.

Key words :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Imanishi Ryu*(今西龍), Japanese Ministry of Imna(任那日本府), Lelang Commandery(樂浪郡), Daifang Commandery(帶方郡)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19일